

# 김광수표 '드림노트북' 대수술 기로

### 올해까지 2만7956대 보급... 총 446억원 이상 투입 고의숙 당선인 개별 지급 아닌 공유 방식 전환 예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표 공약인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의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개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의 '전면 개편'이 예고되면서, 새 교육감 체제를 준비하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중학교에 들어가며 받은 노트북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개인이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기를 지원해 차별 없는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올해로 시행 4년째에 접어들면서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드림노트북이 지원됐다. 도교육청은 사업 첫해 7000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만7956대의 노트북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보급했다. 이 기간에 투입된 예산은 총 446억27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111억원 이상이 쓰였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노트북 활용률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드림노트북 활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 3일 이상' 드림노트북을 수업에 활용하는 중학교 1학년이 2023년 12.15%에서 2025년 46.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

용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드림노트북을 수업에 활용한다고 답한 중학교 2·3학년은 각각 26.41%, 26.29%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의 반응도 엇갈린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서귀포시 동홍동)는 "수업 시간에 모뎀활동을 하면서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과제를 할 때 활용도가 높아 만족한다"고 했고,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또 다른 학부모(서홍동)는 "1학년 때는 좀 들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활용을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오는 7월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 들어서면 드림노트북 사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투입 예산 대비 낮은 활용도를 지적하며 1인 1노트북 정책의 '전면 재구조화'를 공약한 바 있다. 기존에 드림노트

북에 투입되던 예산은 입학준비금(초 70만원·중 50만원·고 50만원)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고, 노트북은 학교에서 공용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출범한 제18대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도 현행 개별 지급 방식을 '공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공유 노트북 관리·보관 문제 등이 해결 과제로 제기된다.

고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당일 기자회견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1인 1노트북 사업이) 실제 효능감 있게 추진됐느냐는 분석을 통해 어떻게 전환해 나가야 무리 없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준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정부, '이 대통령 4·3 약속' 이행 나섰다

### 희생자 신고·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 등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제주4·3 희생자 유족에게 약속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올해 8월 종료 예정이었던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절차는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도 2027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기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청기간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조문 중 한 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을 (개정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개정후)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신청기간을 (개정전)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개정후) 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도 (개정전)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개정후)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신청기간 역시 (개정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개정후)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3희생자 유족회는 그동안 피해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을 정부에 지속 요청해왔다.

청와대·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 제21회 제주포럼 '4·3세션'서 4·3평화교육 확장 방안 논의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처음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4·3의 역사적 진실과 화해·상생의 가치를 미래세대 평화교육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제주해비치호텔&리조트 다이아몬드홀에서 제주4·3연구소 주관으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4·3 세션'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4·3 세션은 '4·3과 평화교육'을 주제로 마련됐다. 제주포럼 대주제인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성'에 맞춰 세계가 인정하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미래세대 평화교육으로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세션에는 유네스코 본



바지선 뉘시체험 10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포구 바지선을 찾는 관광객들이 뉘시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부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보존 업무를 총괄하는 팩스 반다 세계기록유산부 부장장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그는 제주4·3기록물이 지닌 인류사적 의의를 짚고, 평화 전승을 위한 교육적 활용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션은 홀로코스트 전문가이자 평화·인권교육에 힘써 온 최호근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전 우택 연세대 명예교수, 한건수 강원대 교수, 김세연 일본 백두학원 건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등이 참여해 4·3과 평화교육의 접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일 오후 1시30분 해비치호텔 크리스탈홀A에서는 '기억에서 권리로: 제주평화인권현장과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의 실천적 전환' 세션이 운영된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제주 범도민 걷기정책, 전국 우수시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건강증진과 비만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걷기정책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역 내 비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 사업과 환경 조성 등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 비만예방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범도민 걷기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도심도로를 도민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걷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기획·운영해 왔다. 또한 걷기정책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민관 협업 기반 거버넌스 구축, 도민 참여형 걷기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점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러한 제주도의 걷기 실천 확산은 도민 건강지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걷기 실천율은 2023년 41.0%에서 2025년 49.9%로 8.9%p 상승했으며,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도 같은 기간 29.2%에서 37.8%로 8.6%p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비만을 순위도 개선돼 걷기정책이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확산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소영기자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